

과거의 의서에서부터 당대의 실천까지 : 『소문대요』, 소문학회, 그리고 동아시아 의학전통의 전승을 바라보는 의료인류학적 시선

김태우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학교실

From Classical Texts in the Past to Practices in the Present : An Anthropological Exploration of 『Somun Daeyo』, Somun Hakhoe, and the Transmission of East Asian Medical Tradition

Taewoo Kim

Dep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meaning of classical texts in contemporary society. Drawing on an anthropological investigation of Somun Hakhoe, an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doctors in South Korea, and its foundational text 『Somun Daeyo』, the present study explores the interconnectedness of medical texts and medico-social practices in bringing medical tradition into the contemporary era. The themes that author Lee Kyu-joon emphasizes in 『Somun Daeyo』 are thoroughly embodied in Somun Hakhoe's medico-social practices, such as the study activities based on 『Somun Daeyo』(in particular, on Somun Buseol, the five articles written by the author, attached to 『Somun Daeyo』), the focus on Buyang theory(扶陽論), and the distinctive feature of composing formula. The ethnographic data collected about the group activities of Somun Hakhoe also demonstrate that the social relationship of the teacher and disciples plays an important role in bringing East Asian medicine into the present. This study articulates the significance of the interaction between the classical text and the medico-social practices around it. The dynamism taking place in the interaction points to the "living tradition" actively flowing rather than being static in the past. This study illustrates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medical history and medical anthropology and encourages more studies of classical texts based on the intimat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disciplines.

Key words : 『Somun Daeyo』, Somun Hakhoe, Classical Texts, Medico-social Practice,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cal History and Medical Anthropology

I. 들어가며

醫書¹⁾는 인류학자에게 의미심장한 질문들을 던진다. 각
각의 문화가 드러내 보이는 다양한 인간 이해의 방식들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류학자들에게, 동서고금의 의
서는 인간 존재에 대한 흥미로운 관점들이 담겨 있어 있는
또 하나의 인류학적 보고서[ethnography]이다. 베살리우스
(1542)의 『인체구조에 대하여 De Humani Corporis Fabrica』
가 드러내 보이는 정신적인 부분의 배제와 인체의 물질적
바탕에 대한 강조는 초월적 세계와 경험적 세계를 양분하
고,²⁾ 그 두 세계의 구조 위에서 쌓아 올린 서구의 문명사

접수 ▶ 2013년 05월 10일 수정 ▶ 2013년 05월 28일 채택 ▶ 2013년 05월 28일
교신저자 ▶ 김태우,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학교실
Tel : 02-964-3190 Fax : 02-965-5969 E-mail : tkim77@khu.ac.kr

- 1) “醫書”라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고전의서가 근현대에 전달되고 사용되는 방식에 방점을 두고 있는 본 논문에서, 醫書는 근대 이전에 쓰여진, 영향력 있는 의학서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 2) 김상환. 「초학제연구의 문제들: 분류, 상상, 창조」 『고등과학원 초학제연구 프로그램 패러다임-독립연구단 1차년도 학술대회 자료집』 2013:1-25

가 투사되어 있다. 정기신(精氣神)이라는 비물질적 구성물을 인체의 근간으로 설정한 허준(1613)의 『東醫寶鑑』은 초월(비물질)과 세속(물질)이 분리되어 있지 않는³⁾ 동아시아적 세계관이 관통되어 있다. 비슷한 시기에 출판된 이들 두 의서는 동서 사유방식의 차이와 그 인식론적 다름 위에서 꽃피운 동서 문화의 분지를 의학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내 보인다. 의서는 그 의서를 생산한 문화의 산물이며, 다양한 문화 속에서 배출된 다양한 의서들은 각각의 문화들이 추구해온 인간이해의 현현들이다. 문화 다양성에 심대한 관심을 가져 온 인류학자들에게, 이러한 의서들이 드러내 보이는 문화적 다양성은 흥미로운 에스노그래피의 자료(ethnographic data)가 아닐 수 없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 위에서, 의서에 대한 인류학적 고찰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특히 동아시아 의학고전들이 던지는 의료인류학적 질문들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의료인류학은 질병, 앓음, 의료와 연관된 인류의 존재 방식들, 그리고 그 존재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식, 지식, 기술 등을 사회문화적 컨텍스트 속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인류학의 한 분야이다. 의료인류학은 현지조사를 통해서 당대의 의료적, 사회적 실천(practice)에 함의된 역사와 권력 그리고 체제를 읽는 작업을 진행한다. 즉, 어떤 실천을 지금의 시대에 중요한 실천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힘들(forces)에 주목 한다. 현지에서 목격되는 실천의 역사적 맥락을 강조하는 당대인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의서는 다양한 연구주제를 의료인류학에 제기한다.

1. 의서가 제기하는 의료인류학적 과제

의서는 먼저 “실천”(practice)을 매개로 의료인류학과 만난다. 의서의 발간목적이 의학지식의 전달이라고 한다면, 의서를 매개로 한 이전세대로부터 이후세대로의 의학지식 전달의 실천은, 문화 전승은 어떻게 실천되는가라는 인류학적 주제와 일맥상통하다.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의서는 실천 없이는 의서발간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 의서 발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더 효능 있는 의료적 실천이라고 한다면, 문자로 이루어진 의서와 의료적 실천 행위 사이의 간극을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수반되는 당대의 실천들(즉, 한의대에서의 교육, 도제 식교육 등)은 인류학의 중요한 관심분야이다.⁴⁾

의서는 또한 권위와 근거의 문제를 환기시킨다. 근대화 이전 동아시아 의학교전들은 의료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권위이고 근거였다. 동아시아인들은 그 내용의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된 문서에 經의 명칭을 부여하는 역사적, 사회적, 문헌학적 활동을 통해서 (內經, 難經 등) 문서의 권위를 만들어 왔다. “經”을 통한 권위의 제도화 뿐만 아니라, 후대 의가들의 인용과 참조라는 사회적 실천은, 또한, 권위있는 의서의 군(群)을 형성해 왔고 그 권위는 동아시아 의학에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다. 한 사회 속에서 고전의서가 가진 권위는 지금의 사회에서도 도처에서 발견된다. 예컨대 한국의 건강보조 식품의 광고에서, 그 식품의 주재료를 언급한 동의보감의 문구는 빠지지 않는다. 또한, 각 식재료들의 효능에 대한 동의보감 문구가 대문짝만하게 붙여진 식당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의서가 드러내는 지식/권력의 융합은,⁵⁾ 후기구조주의(post-structuralism)의 세례를 받은 당대의 인류학에게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고전의서는 당대 인문사회과학의 근본적 주제 중 하나인 근대성의 문제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현지(site)를 제공한다. 근대는, 근대 이전에 존재하던 사회적 문화적 구성물들에게 통과세를 부과한다. 전통적 복식, 가옥양식, 정치체계, 교육기관 등은 근대에 지불해야하는 (때로는 과도한) 통과세의 압박 때문에 변형되거나 혹은 단절의 위기에 놓이기도 한다.⁶⁾ 이러한 근대의 통과세라는 의서의 문제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전근대에서부터 근대로의 이행이 의서에 요구하는 첫 번째 이슈는 번역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전 근대의 언어로 씌여진 의서를 어떻게 지금의 방식으로 표현할 것인가는 당대의 전통의학이 직면한 주요 이슈이다. 고전의서가 직면한 번역의 이슈는, 언어적인 측면을 넘어서, 근대 이후 급격한 사회문화적 변화에 수반된 불연속을 극복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부과한다. 즉, 근대화의 변화를 경험한 지금의 사회에서는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 일상으로 받아들여지던 의학표현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의미론적 해석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전근대의 의학교전을 근/현대의 현실에 가져오기 위한 사회적 실천들(한의대 고

3) 김우창. 「문명의 에피스테메-윤리와 진리」 『고등과학원 초학계연구 프로그램 페러다임-독립연구단 1차년도 학술대회 자료집』 2013:79-120.

4) Hsu, Elisabeth. 『The Transmission of Chinese Medicine』 Cambridge: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1-296.

5) Foucault, Michel.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New York:Vintage Books. 1995:1-333.

6) 한국사회는 근대 이전의 복식과 가옥양식에 회귀할 정도로 과도한 통과세를 부과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한복이 결혼식장에서만 (요즘은 명절에도 잘 볼 수 없다) 존재하는 현재 한국의 상황은 그 과도한 통과세를 표현 한다.

과서의 편집, 한문의서의 한글/영문 번역, 원전교육 등)은 새로운 측면에서 근대성의 이슈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인문 사회과학적 연구 사이트를 제공한다.

전근대와 근대 사이의 긴장 속에 존재하는 의서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과학과 서양의학의 이슈들이다. 전근대에 존재했던 의서를 근대에 가져오는 일은 과학과 서양의학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당대의 의료/정치적 지형 위에 어떻게 그 의서를 위치시키는가의 문제를 제기한다. 동아시아의학의 과학화 표준화 담론들과 그를 위한 사회적 실천들은 그 위치지움의 문제를 예시한다.⁷⁾ 근대 이전에 한의학적 의료행위에 “근거”를 제공하던 의서들은 근대의 도래와 함께 그 역할의 일부(혹은, 많은 부분)를 과학과 서양의학에 양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전통적인 것과 근대적인 것 사이에 드러나는 근거를 향한 협상과 쟁투 그리고 종속은 그러한 사회적 실천이 일어나고 있는 사회의 근대성을 효과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창을 열어젖힌다. 예를 들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탄생 이후 중의학에서의 과학화 논쟁,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에서 전통의학이 서양의학과 관계 맺는 방식, 그리고 1945년 이후 포스트콜로니얼 한국에서의 과학화 표준화 논쟁은 한, 중, 일 세 국가가 상정하고 추구해 왔던 각각의 근대성의 현현들을 드러내 보인다.⁸⁾ 과학 서양의학과 피할 수 없는 관계 맺기의 상황에서 고전 의서가 근현대에 가져와 지는 방식은 근대성 논의를 위한 흥미로운 인류학적 현지가 아닐 수 없다.

근대라는 시대는 근대적 교육기관을 전통의학에 요구함으로써 의서를 전근대에서 가져오는 사회적 실천에 깊이 개입한다. 근대적 교육은 근대적 교육공간에서 (예를 들면, 강의실에서), 근대적 텍스트를 통해서 (예를 들면, 교과서를 통해서), 근대적 교육방법에 의해 (예를 들면, 한 명의 교수가 다수의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을 통해)

지식이 전달되는 것을 구조화 한다. 근대적 교육에서 의서는 어떻게 자리매김 되는가라는 질문 또한 의서가 의료인류학에 던지는 근대성의 주제를 더욱 의미심장하게 한다.

II. 의사학과 의료인류학의 만남 : 이론적 배경, 연구대상, 연구방법

1. 의사학과 의료인류학

지금까지 언급한, 醫書가 인류학에 던지는 질문들은 의학과 의료인류학의 만남을 목도하게 한다. 의사의 중요 연구과제인 의서가 의료인류학에도 의미심장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가 의학과 의료인류학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의사가 가진 현재성 때문이다. 동아시아의학에서 의서는 박물관에만 존재하는 과거의 기록물이 아니라, 계속해서 당대에 소환되고 사용되는 현재진행형의 텍스트이다.⁹⁾ 이 의서의 현재성이 당대의 실천들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인류학을 의학과 만나게 한다. 의학과 의료인류학의 만남은 일면 역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당대의 인류학에게 예견되어 있는 일이기도 하다. 고전적인 인류학과, 80년대를 기점으로 성립된 당대의 인류학을 가르는 주요 이슈 중의 하나는 역사에 대한 관심의 정도이다. 문화의 논의에 있어 역사를 강조하지 않던 고전적 인류학 연구와는 달리, 당대의 인류학은 지금의 문화에 미치는 역사의 영향력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그리하여 당대 인류학의 문화개념은 역사의 개념이 철저히 관통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당대의 의료인류학이 의료역사의 중심에 있는 의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현

7) Lock, Margaret. 『Rationalization of Japanese Herbal Medication: The Hegemony of Orchestrated Pluralism』. Human Organization. 1990; 49(1):41-47.

Scheid, Volker. 『Chinese Medicine in Contemporary China: Plurality and Synthesis』.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02:1-407.

Taylor, Kim. 『Medicine Chinese Medicine in Early Communist China, 1945-63: A Medicine of Revolution』 London : Routledge. 2005: 1-236.

8) Scheid, Volker. 『Chinese Medicine in Contemporary China: Plurality and Synthesis』.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02: 1-407.

Lock, Margaret. 『East Asian Medicine in Urban Japan: Varieties of Medical Experience』. Berkeley: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0: 1-311.

김태우, 한창호. 『사회 속의 의료, 의료 속의 사회: 한국의 한의학과 중국의 중의학에 대한 의료인류학적 고찰』. 한방내과학회지. 2012;33(2): 111-125.

9) 이것은 동아시아 전통의 인식론과도 관련된 동아시아의학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인식론의 견지에서 왜 동아시아 의학교전들은, 서양의학과는 달리, 계속해서 생명력을 가지고 당대의 의료에 사용되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된 논의를 위해서는 Kim, Taewoo. 『Medicine without the Medical Gaze: Theory, Practice and Phenomenology in Korean Medicin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Department of Anthropology. Ph.D. Dissertation. 2011:1-216. 참조.

상이라고 할 것이다.

의서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은 국내연구에서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지만, 국외에서는 의료인류학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인류학적 현지조사를 통해서 중국 의학 지식의 전승 현장을 연구한 엘리자베스 수(Elisabeth Hsu)는 『The Transmission of Chinese Medicine』(1999)에서 張景岳의 『類經』과 李中樞의 『內經知要』를 분석하고 있다.¹⁰⁾ 두 의학교전에서의 내경 분류방식과 당대 중의학 교과서의 체계화 방식을 비교하면서, 전근대와 근현대 사이 중의학 지식의 연속과 단절 그리고 변형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의료인류학자 Volker Scheid는 그의 책 『Chinese Medicine in Contemporary China』(2002)에서 『傷寒論』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당대 중의학의 辨證論治가 張仲景의 시대에서부터 면면히 내려오는 중국의학 전통이 아니라, 1949년 중국공산체제의 탄생 이후 중의학의 표준화 과학화 과정에서 새롭게 정립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¹¹⁾ 또한 Scheid는 『Currents of Tradition in Chinese Medicine 1629-2006』에서 중국의 孟河學派의 의서와 학파 구성원들의 활동, 그리고 그 학파가 당대 중의학에 미친 영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¹²⁾

동아시아 의학을 연구하는 의료인류학자들의 에스노그래피가 보여주듯이,¹³⁾ 인류학적 현지조사가 동아시아 의학의 현장에서 진행될 때 의사학과 의료인류학의 만남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천이 醫書에 근거를 두고 있을 때 의사학에서 다루는 醫書의 문장은 인류학 현지(site)의 실천으로 구체화 된다. 의료인류학과 의사학은 醫書의 텍스트가 당대의 실천으로 되살아나는 순간에 불가분의 공존을 이룬다. 본 논문은 이와같은 의사학과 의료인류학의 만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 전제 위

에서 의서를 매개로한 의사학과 의료인류학의 보다 적극적인 만남을 추구해 보고자 한다.

2. 『소문대요』, 소문학회, 그리고 의학전통의 전승

의료인류학과 의사학의 만남이라는 조건 위에서 의서가 던지는 인류학적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소문대요』와 소문학회에 집중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소문대요』는 1904년에 석곡 이규준이 저술한 의서이다 그리고 소문학회는 당대 한국사회에서 한의학을 실천하는 한의사들의 학술/임상 단체이다. 소문학회는 의서와 연관된 의학전통의 전승 연구를 위한 의미있는 현지(site)를 제공한다. 학회 활동의 중심에 『소문대요』라는 의서가 있다는 점, 무위당 이원세를 통해서, 19세기에 태어난 석곡 이규준으로부터 당대소문학회에 이르기까지 사승관계가 단절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은 학파와 의학전통의 전승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드문 기회를 제공한다. 석곡 이규준과 『소문대요』에 대한 연구는 의사학, 원전학, 동아시아 철학의 맥락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¹⁴⁾ 이들 연구에서 소문학회는 학술사상(부양론), 저술(소문대요), 인물과 사승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당대 한국 한의학의 주요 학술유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¹⁵⁾ 본 논문은 지금까지의 논문들에 인류학 연구의 현장성을 연결시켜 당대 한의학의 의서와 학파연구에 일조하고자 한다.

고전의서를 근/현대에 가져오는 방식을 주제로 잡고 있는 본 논문에게 『소문대요』를 바탕으로 한 소문학회의 의료적, 사회적 실천은 의미있는 인류학적 사이트를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소문학회의 의료적 실천(medical

10) Hsu, Elisabeth. 『The Transmission of Chinese Medicine』. Cambridge: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1-296.
11) Scheid, Volker. 『Chinese Medicine in Contemporary China: Plurality and Synthesis』. Durham, NC:Duke University Press. 2002:1-407.
12) Scheid, Volker. 『Currents of Tradition in Chinese Medicine 1626-2006』. Seattle:Eastland Press. 2007:1-565.
13) Farquhar, Judith. 『Knowing Practice: The Clinical Encounter of Chinese Medicine』. Boulder: Westview Press. 1994:1-260.
Hsu, Elisabeth. 『The Transmission of Chinese Medicine』. Cambridge: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1-296.
Kim, Taewoo. 『Medicine without the Medical Gaze: Theory, Practice and Phenomenology in Korean Medicin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Department of Anthropology. Ph.D. Dissertation. 2011:1-216.
Scheid, Volker. 『Chinese Medicine in Contemporary China: Plurality and Synthesis』. Durham, NC:Duke University Press. 2002:1-407.
14) 권오민. 「이규준의 심기철학과 부양론의 연관성 연구: 『석곡심서』와 부양론을 중심으로」.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04;10(1):15-29.
권오민, 박상영, 안상영, 한창현, 안상우. 「이규준의 생애와 사상적 경향」. 한국의사학회지. 2009;22(1):7-13.
권오민, 차용석, 김남일. 「석곡 이규준의 철학사상과 의학론의 연관성 연구: 『석곡심서』와 부양론을 중심으로」. 한국의사학회지. 2004;17(1):3-29.
김중환. 「이규준의 소문대요에 나타난 독창성」.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991;5:18-46.
김창건, 율창열. 「『황제소문대요』제지에 대한 연구」. 대전대학교한의학연구소논문집. 2006;15(2):29-38.
성호준. 「조선후기 석곡 이규준의 율학과 의학」. 동양철학연구. 2009;60:109-132.
황원덕. 「석곡 이규준의 부양론에 대한 연구」. 대한원전역사학회지. 1999;12(2):16-53.
황원덕. 「천원기대론 중 상하주기에 대한 석곡 이규준의 교정에 관한 고찰」.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9;22(4):177-188.
15) 김남일. 「한국한의학의 학술유파에 관한 시론」. 한국의사학회지. 2004;17(2):3-25.

practice)이 드러내 보이는 특징들을 논해보고 그 특징들이 어떻게 『소문대요』에서 이규준이 강조한 내용들과 관련되는 지 조명해 보고자 한다. 또한 그러한 의료적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실천(social practice)의 중요성을 논해보고자 한다. 『소문대요』라는 “의서”와 소문학회의 “실천”이 연관되어지는 방식은 어떻게 동아시아 의학전통이 당대로 전승되는가에 대한 의미있는 논의의 장을 제공할 것이다.

의서가 당대에 가져와 지는 방식에 대한 논의는 “전통”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근대성에 대한 논의가 당대 인문사회과학의 근본적인 주제라고 한다면, 전통이 근대에 존재하는 방식 그리고 근/현대 속의 전통의 의미는 근대성 논의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연구주제이다. 본 논문의 의서에 대한 의료인류학적 연구는 이러한 의미있는 연구주제의 논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의사학과 의료인류학의 만남이라는 전제 위에서 논의 될 전통의 의미는, 새로운 각도에서 전통의 의미를 비춰줄 것이다.

3. 연구방법

본 논문은 인류학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의서가 당대에 불려와 지는 방식을 연구하였다. 인류학의 참여관찰 방법을 통해서 소문학회의 활동에 직접참여하고 학회회원들을 인터뷰하였다. 필자의 소문학회에 대한 참여 관찰은 2011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참여관찰은 인류학이 그 동안의 학문적 활동을 통해서 통찰한 “실천”(practice)의 다측면성을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다.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역사적 컨텍스트와 씨줄 날줄로 얽힌 실천의 다측면성을 포착하기 위하여 인류학자들은 실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지(site)에 스스로를 위치시키고 그 씨줄 날줄이 연결되는 방식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필자가 스스로를 위치시킨 현지는 소문학회 회원들의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는 장소들이었다. 첫째, 학회회원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장소에서 현지조사가 진행이 되었다. 소문학회의 공부모임은 전체 공부모임, 지부모임, 각 회원들이 한의대생들과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공부모임, 그리고 학회회원을 위한 동영상 강좌 등, 복수의 층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된다. 필자는 이러한 다양한 공부모임을 참여 관찰하며(혹은 시청하며) 『소문대요』의 내용이 당대에 전달되는 방식을 조사, 분석 하였다. 정기적으로 가지는 공부모임 이외에 숙식을 같이 하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캠프가 또한

진행된다. 소문학회는 한의대학생들을 위해 방학 동안에 진행되는 학생캠프 뿐만 아니라 한의사들을 위한 한의사 캠프를 개최하여 『소문대요』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필자는 학생캠프와 한의사 캠프에도 참가하여 『소문대요』의 당대 존재 방식을 참여관찰 하였다. 또한 학회 회원 한의원에서 진료참관을 통해서 『소문대요』가 직접 의료행위로 구체화 되는 장면들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진료실에서의 참여관찰은 과거의 의서가 당대의 실천으로 현실화되는 의미 있는 현장을 목격하게 해주었다. 본 논문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필자가 200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한의학의 다양한 학회에 대한 현지조사는 비교연구의 관점을 제공하여 소문학회의 의료/사회적 실천에 대한 좀 더 심화된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Ⅲ. 『소문대요』와 소문학회

『소문대요』와 소문학회의 관계는, 의사학과 의료인류학의 만남의 전제 위에서 진행되는 전통의 전승에 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그것은, 『소문대요』를 관통하는 석곡의 관점이 소문학회의 특징으로 나타나며, 소문학회의 특징적인 면면들은 학회회원들의 사회의료적 활동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소문대요』가 당대에 소환되어지는 방식을 조망하기 위하여 이 장에서는 소문학회 회원들의 의료적/사회적 실천(medico-social practice)을 살펴보고 그러한 면면들이 어떻게 소문대요와 연관되는 지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여기서 의료/사회적 실천이라고 한 것은 의료적 실천과 사회적 실천이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지시하기 위해서이다. 학회회원들이 모여 소문에 대해서 함께 공부 하는 것은 의료/사회적 실천에 대한 일상적이면서도 훌륭한 예시를 제공한다. 즉, 『소문대요』라는 의서를 공부하는 실천이, 소문학회라는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 회원들이 사회적인 교류와 공동의 행위를 하는 사회적 실천과의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천들이 모여서 또한 소문공부를 통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행위가 가능하게 된다. 의료/사회적 실천을 좀 더 폭넓은 역사적 컨텍스트 속에서 바라본다면 당대의 소문학회가 소문대요를 공부하고 그를 바탕으로 의료적 실천을 하는

자체가 과거와 현재의 의료/사회적 실천이 모여서 지금의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석곡이 소문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의서를 저술하고,¹⁶⁾ 목판본을 찍어 발간하는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의 의료/사회적 행위를 통해서 소문대요라는 의서는 탄생하였고, 소문을 바라보는 석곡의 관점이 전달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역사/의료/사회적 실천의 바탕위에 지금의 소문학회의 활동도 가능한 것이다.

의료적 내용과 사회적 내용은 불가분일 뿐 아니라 또한 상호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아래에서 충분히 예시가 되겠지만, 석곡 이규준이 견지한 소문을 바라보는 관점은 소문대요를 관통하고 있고 그러한 관점은 소문학회 회원들의 학회활동(사회적 실천)을 규정한다. 또한 당대 소문학회 회원들의 학회활동은 학회회원들의 진료 행위(의료적 실천)에 또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의료적인 것과 사회적 것 사이의 경계 없음을 인류학자들은 오래 전부터 인식하고 인문사회과학의 관점으로 의료를 바라보는 의료인류학이라는 분야를 발전시켜왔다.¹⁷⁾ 아래의 소문대요와 소문학회에 대한 논의들은 이러한 불가분성을 자명하게 드러내 보일 것이다.

1. 『소문대요』를 중심으로 한 의료/사회적 실천

소문학회 현지조사 중 특히 필자의 주목을 끈 것은 『소문대요』의 괄목할 만한 존재감이다. 학회 활동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소문대요』는 항상 회원들 앞에 놓여 있었다. 전체 공부모임, 지부모임, 한의사 캠프, 학생 캠프 등, 모임의 형식은 다양하고 그 모임에서 다루는 주제도 다양했지만 논의의 내용은 변함없이 『소문대요』로 회귀하고 있었다. 『소문대요』를 공부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의감중마』나 약성가를 공부할 때, 혹은 특정 질환이나 증상을 주제로 공부할 때도 『소문대요』는 항상 중심에 있었다. 총 260여 페이지 밖에 되지 않는 『소문대요』에¹⁸⁾ 대한 일관된 천착은 처음에는 의아하게 여겨질 정도로 소문학회 활동의 특징적인 면이었다.

하지만 소문학회 현지조사 자료가 축적되면서, 『소문대요』는 소문학회가 추구하는 의학관, 질병관, 인간관의 대전제

를 이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황제내경 소문에서는 구체적인 치료법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거기에는 동아시아의학이 바라보는 세계와 인간 그리고 인간이 앓을 수 있는 질병에 대한 관점이 제시되어 있다. 소문학회가 항상 『소문대요』를 중심에 두고 활동하는 것 또한 소문의 내용이 한의학적 의료를 진행하는데 근본적인 토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참관 했던 전체 모임에서, 약성가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도 『소문대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은 이러한 당대 소문학회의 활동에 있어 『소문대요』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분명히 예시하고 있었다. 약성가는 본초 각각의 기미, 성정, 효능 등 구체성에 대한 언급 이지만, 소문학회 약성가 공부의 근간이 되는 것은 “약의 성(性)과 사람의 성(性)이 둘이 아니다”라는 전제이다. 성(性)이라는 것은 곧 생명력을 말하기 때문에 생명의 근본을 논하고 있는 “소문의 이치를 알아야 약성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소문학회 회원들이 『소문대요』를 반복적으로 읽고 공부하는 것은 소문이 생명의 이치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석곡이 소문대요제지에서 표현한 소문에 대한 관점은 이러한 근본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위로는 천지음양의 근원을 궁구하고, 가운데로는 생사유명의 연고를 통하며, 아래로는 곤충초목의 미미함까지 다 밝혀서 이르지 않는 것이 없다 上窮天地陰陽之原 中通死生幽明之故 下察昆蟲草木之微 靡不底極”¹⁹⁾ 즉, 우주의 근본, 사람의 삶과 죽음, 그리고 곤충 초목에 이르기 까지 그 이치가 닿지 않는 곳없이 꿰뚫고 있는 것이 소문이 담고 있는 이치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치를 익히는 것을 소문학회의 공부모임에서는 특히 강조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이치를 터득하게 되면 그것이 생명현상, 질병현상, 치료법에 다양하게 적용 된다는 것이다. ‘소문학회는 『소문대요』를 바탕으로 한다’는 사실은 필자의 현지조사에서 어떤 인상적인 장면들로 드러났다. 공부 모임에서 회원들 앞에 항상 놓여 있는, 오랫동안 보아 온 『소문대요』, 그리고 낡고, 닳은 『소문대요』를 다시 들여다보는 회원들의 모습은 『소문대요』가 소문학회의 근간이라는 말을 형용하는 장면들이었다.

16) 『소문대요』 제지 참조.

17) 김태우, 한창호. 「사회 속의 의료, 의료 속의 사회: 한국의 한의학과 중국의 중의학에 대한 의료인류학적 고찰」. 한방내과학회지. 2012;33(2): 111-125.

18) 이규준. 『소문대요』. 서울:대성의학사. 1999:1-267.

19) 이 부분의 해석을 위해서 소문학회의 동영상 강의를 참조하였다.

2. 『소문대요』 본문과 부설

석곡 이규준은 『소문대요』에서 본인이 직접 작성한 다섯 편의 논문을 소문부설(素問附說)이라는 이름하에 첨부하고 있다. 扶陽論, 氣血論, 腎有兩藏辨, 脈解, 注下解로 구성된 이들 다섯 편의 논문을 통해서 석곡은 소문의 “대요”를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즉, 이 다섯 편의 논문이 소문을 바라보는 석곡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후학들은 그 논문들을 읽음으로써 그의 관점으로 소문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소문대요의 구성은 소문학회의 활동에서 의료/사회적 실천으로 구체화 된다.

한의대 학생들을 위한 소문캠프는 이에 대한 가시적인 예시를 제공한다. 여름과 겨울 방학 기간에 진행되는 소문 학생캠프의 커리큘럼을 보면 『소문대요』 본문과 소문부설 논문이 적절히 배합되어 있다. 이에 맞추어, 필자가 참관한, 2011년 겨울, 2012년 겨울, 2012년 여름의 캠프에서는 『소문대요』 본문 공부와 부양론, 기혈론, 신유양장변, 맥해 등의 소문부설 논문 공부와 유기적 연관 속에서 병행되고 있었다. 『소문대요』의 구성이라는 “의료적 내용”은 소문학생 캠프 활동의 “사회적 내용”으로 구체화 되고 있는 것이다. 『소문대요』라는 의서를 사회적 실천으로 펼쳐놓은 듯한, 이러한 의료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착종은 의학전통이 전달되는 데 있어 의서와 실천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가시화 한다

3. 부양론, 생명력, 그리고 작방

소문부설의 첫 번째 논문이면서 석곡 이규준의 대표적 醫論인 부양론은 소문학회의 의료/사회적 실천의 근간을 구성한다. 부양론의 특징은 심화와 양기의 강조에 있다. 부양론의 첫구절은 석곡의 관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水火者陰陽之微兆라 하였다 사람도 역시 이에 應하여 心火는 上에 있고 腎水는 下에居한다. 火가 水에 降下한 연후에 水가 이에 升하니 陽이 交하면 生하고 陽이 反하면 死하게 된다. ... 심은 火의 主가 되므로 君火라고 하며, 腎을 相火라고 말한 것은 (腎에) 별도의 火가 있는 것이 아니고 心火가 水에 行할 때 나타

나는 火를 말한 것이다. 火가 氣運으로 되는데, 이는 능히 지각하고, 활동하고, 호흡하고, 웃고 말하고 肌膚를 潤澤하게 하고, 風寒을 막아서 一身에 流周하지 않은 곳이 없으니, 陽氣가 있으면 살고 陽氣가 없으면 죽게 된다”²⁰⁾

그러므로 처방도 “陽氣가 人身에 惝 차서 막히는 곳이 없이 활동하여 사가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扶陽”이 주를 이루게 된다.²¹⁾ 양기의 강조는 소문부설 기혈론에서 강조하는 “風者百病之長也”와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즉, 풍한이 양기를 치는 가장 강력한 요소이기 때문에 풍에 주의 기울여야 함을, 석곡은 소문의 문장을 인용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양기가 인신에 惝차있는, 생명력이 완전한 상태는 소문학회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 근본적인 잣대가 된다. 필자가 참관했던 소문학회회원의 한의원에서는 생명력이 절정이나 외감에 의해 완전한 상태가 되지 못하는 양태를 파악하고 있었다. 즉, 망문문절을 통해서 양기의 어그러진 양태를 구체화함으로써 진단이 진행되고 있었다. 생명력의 양태에 주목하는 진단의 접근법은 바로 처방(治法)으로 연결된다. 소문학회의 특징 중의 하나인 작방(作方)도 여기에 연원을 두고 있다. 생명력의 양태는 사람에 따라, 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생명력의 지금 상태에 꼭 맞는 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작방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환자의 양태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과거에 명방을 지은 의사가 아니라, 지금 그 환자의 바로 앞에 앉아 있는 의사이기 때문에 작방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석곡은 “병을 내[진단하는 의사]가 분명히 알고 있으니 처방도 내[바로 그 진단하는 의사]에게서 나와야 한다 病我自明方我出”고 단언한다.²²⁾ 이와 같이 석곡이 문서를 통해서 표현했던 강조점들은 소문학회의 의료적/사회적 “실천”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당대의 실천들은 다시 석곡의 글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다.

4. 素問을 이해하기 위하여 : 사승관계

『소문대요』가 당대에 가져와지는 방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학회회원들 간의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

20) 황원덕. 「석곡 이규준의 부양론에 대한 연구」. 대한원전역사학회지. 1999;12(2): 25.

21) 황원덕. 「석곡 이규준의 부양론에 대한 연구」. 대한원전역사학회지. 1999;12(2): 26.

22) 이원세. 『의감중마백병총괄방약부편』. 서울:대성의학사. 2001:349.

이다. 이와 관련해, 필자의 소문학회에 대한 현지조사 경험 중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끊임없이 언급되는 스승, 무위당 이원세에 대한 기억이었다. 전체 공부모임, 지부공부모임, 학생캠프, 한의사 캠프 등 그 모임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모든 모임에서 “무위당 선생님”이라는 말을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 “무위당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 하셨다, “무위당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다 등 스승의 언행에 대한 기억은 모임에서의 대화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그 기억에는 스승이 어떤 질병을 바라봤던 관점, 치료 사례 등 의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스승과 환자 그리고 스승과 제자들 사이의 일화 등 다양한 기억들이 회자되고 있었다. 현지조사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스승에 대한 기억은 지금의 소문학회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고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스승에 대한 좋은 기억(예를 들면 제자에 대한 배려), 놀라운 기억(어려운 환자를 치료한 케이스)은 학회회원들 간의 든든한 유대를 가능하게 하는 끈이 되고 있었으며, 한 스승으로부터 배운 제자라는 공통된 정체성을 가능하게 하는 지지대가 되고 있었다.

소문학회 회원들의 학회활동이라는 사회적 실천을 통해서 회자되고 있는 스승에 대한 기억은 의료적 실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스승에 대한 좋은 기억은 스승의 학문에 대한 존경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그러한 존경이, 쉽지 않은 『소문대요』공부를 지속하게 하는 끈이 되고 있었다. 소문에 대한 공부는 당대의 한의사들이 어렵게 느낄 여지를 다분히 가지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문의 내용에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처방이나 혈자리가 체계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아니다. 소문의 원리를 이해하여 그 이해를 임상에 응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소문공부는 지금의 한의사에게 지름길을 놔두고 돌아가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특히, 배우기 쉽고 숙지하는 기간이 짧은 진료법이 다수 존재하는 현재 한국 한의학의 상황에서 이러한 느낌은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스승에 대한 기억과 그를 통한 회원들 간의 연대는 이러한 소문공부의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디딤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소문학회를 가능하게 하는 이러한 사승관계는, 다양한 학파가 존재하는 한국사회라는 컨텍스트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만약 석곡이 중국에서 태어나고 소문대요가 당대 중의학에서 전달되어야 할 상황이라면, 그러한 조건 위에서 소문대요의 전승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다. “중

과주의 타파”라는 마오쩌둥의 교시 아래, 국가주도 “표준화”를 혁명의 방식으로 추진했던 1949년 이후 중의학 변화의 와중에서²³⁾ 소문대요의 전승은 분명히 지금의 한국과는 다르게 나타났을 것이다. 이와 같이, 좀 더 폭넓은 사회적 컨텍스트를 통해 소문학회를 바라본다면, 의서를 바탕으로 한 의료적 실천은 사회적인 것들과 철저히 착종되어 있다는 것은 자명해 진다.

IV. 나오며

: 동아시아 의학전통의 전승에 대한 고찰

의사학과 의료인류학의 만남이라는 전체 위에서, 본 논문이 시도해 본 소문대요와 소문학회에 대한 고찰은 동아시아의학전통의 전승에 대한 몇가지 의미 있는 논의의 지점들을 제시한다. 동아시아의학에서 의서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 급변하는 의료정보의 홍수 속에서 불과 몇 년 전의 의료지식도 무의미해 지는 생의학(biomedicine)과는 달리, 동아시아의학은 수천 년, 수백 년 전에 성립된 의학전통을 여전히 당대로 소환시키면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거에 쓰여진 의서는 어떤 방식으로 당대에 존재하는가?” “의학전통은 어떻게 전승되는가?”라는 질문들은 반드시 물어져야 할 질문들이다.

지금까지 소문대요와 소문학회를 통해서 조망해 본 바와 같이, 동아시아의학전통을 전승하는데 있어 의서와 그 의서를 둘러싼 사람들의 의료/사회적 실천은 필수불가결의 조건이다. 의학전통의 전승에는 세 종류의 행위자의 역할이 중요해 보인다. 저자, 스승, 제자가 그 행위자들이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이들의 역할은 때에 따라 바뀌기도 한다. 즉 제자가 다시 스승이 되고 제자가 다시 저자가 되기도 한다. 석곡의 제자였던 무위당은 다시 소문학회의 초기 회원들을 키우는 스승이 되었고 『의감중마백병총괄부방약편』을 저술한 저자가 되었다. 무위당의 제자들이 지금 소문대요의 초심자들을 이끄는 스승이 되어 있으며 그들은 또 다른 저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²⁴⁾ 이러한 의서를 중심으로 한 행위자들의 역사적 역할극을 통해서 의학전통은 이전 세대에서도 다음 세대로 전달 된다. 우리는, 의사학의 관점에서, 이러한

23) Scheid, Volker. 『Chinese Medicine in Contemporary China: Plurality and Synthesis』. Durham, NC:Duke University Press. 2002:1-407.

24) 황원덕. 「석곡 이규준의 부양론에 대한 연구」. 대한원전역사학회지. 1999:12(2):16-53.

문서와 의료/사회적 실천의 상호작용을 학과 혹은 학설이라는 이름으로 불러 왔다. 문서를 강조하는 역사적 연구의 관점에서는 인간, 즉 행위자의 실천이 덜 강조되는 경향이 있지만 여기에 의료인류학적 접근법을 통해 행위자의 실천에도 방점을 둔다면, 의학 전통의 전승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훌륭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여기에 본 논문이 추구하고 있는 의사학과 의료인류학의 만남의 의미가 있다.

과거의 의서에서부터 당대의 실천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행위자들의 의료/사회적 실천을 통해서 전통은, 우리가 당대라고 부르는 지금의 시대에까지 전달된다. 의사학과 의료인류학의 관점에서 바라 본 동아시아 의학전통은 정체된, 과거 시제로 존재하는 유물이 아니다. 과거 의서에서부터 당대의 실천까지를 포함한 역동적 흐름을 포괄한 것이 동아시아 의학전통이다. 당대 소문학회의 의료 사회적 실천을 통해 『소문대요』는 끊임없이 당대로 소환되며, 당대에서의 실천 속에서 “살아있는 전통”(living tradition)으로 존재한다.²⁵⁾ 이러한 다이나미즘(dynamism)을 담지된 역동적 흐름을 통해서 동아시아의학은 당대를 사는 의학으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

참고문헌

1. 권오민. 「이규준의 심기철학과 부양론의 연관성 연구: 『석곡심서』와 부양론을 중심으로」.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04 ; 10(1) : 15-29.
2. 권오민, 박상영, 안상영, 한창현, 안상우. 「이규준의 생애와 사상적 경향」. 한국의사학회지. 2009 ; 22(1) : 7-13.
3. 권오민, 차용석, 김남일. 「석곡 이규준의 철학사상과 의학론의 연관성 연구 : 『석곡심서』와 부양론을 중심으로」. 한국의사학회지. 2004 ; 17(1) : 3-29.
4. 김남일. 「한국한의학의 학술유포에 관한 시론」. 한국의사학회지. 2004 ; 17(2) : 3-25.
5. 김상환. 「초학제연구의 문제들 : 분류, 상상, 창조」 『고등과학원 초학제연구 프로그램 페러다임-독립연구단 1차년도 학술대회 자료집』. 2013 : 1-25.

6. 김우창. 「문명의 에피스테메-윤리와 진리」 『고등과학원 초학제연구 프로그램 페러다임-독립연구단 1차년도 학술대회 자료집』. 2013 : 79-120.
7. 김중환. 「이규준의 소문대요에 나타난 독창성」.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991 ; 5 : 18-46.
8. 김장건, 윤창열. 「『황제소문대요』제지에 대한 연구」. 대전대학교한의학연구소논문집. 2006 ; 15(2) : 29-38.
9. 김태국. 「내경의 임상응용 (1)-(62)」. 민족의학신문. 2011-2012.
10. 김태우 한창호. 「사회 속의 의료, 의료 속의 사회 : 한국의 한의학과 중국의 중의학에 대한 의료인류학적 고찰」. 한방내과학회지. 2012 ; 33(2) : 111-25.
11. 성호준. 「조선후기 석곡 이규준의 유학과 의학」. 동양철학연구. 2009 ; 60 : 109-32.
12. 이규준. 『소문대요』. 서울 : 대성의학사. 1999 : 1-267.
13. 이원세. 『의감중마백병총괄방약부편』. 서울 : 대성의학사. 2001 : 349.
14. 황원덕. 「석곡 이규준의 부양론에 대한 연구」. 대한원전역사학회지. 1999 ; 12(2) : 16-53.
15. 황원덕. 「천원기대론 중 상하주기에 대한 석곡 이규준의 교정에 관한 고찰」. 대한한의원전학회지. 2009 ; 22(4) : 177-88.
16. Farquhar, Judith. 『Knowing Practice: The Clinical Encounter of Chinese Medicine』. Boulder : Westview Press. 1994 : 1-260.
17. Farquhar, Judith & Zhang Qicheng. 『Ten Thousand Things : Nurturing Life in Contemporary Beijing』. New York : Zone Books. 2012 : 1-347.
18. Foucault, Michel.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New York : Vintage Books. 1995 : 1-333.
19. Hsu, Elisabeth. 『The Transmission of Chinese Medicine』.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1-296.
20. Kim, Taewoo. 「Medicine without the Medical Gaze: Theory, Practice and Phenomenology in Korean Medicin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Department

황원덕. 「천원기대론 중 상하주기에 대한 석곡 이규준의 교정에 관한 고찰」. 대한한의원전학회지. 2009;22(4):177-188.

김태국. 「내경의 임상응용 (1)-(62)」. 민족의학신문. 2011-2012.

25) Scheid, Volker. 『Currents of Tradition in Chinese Medicine 1626-2006』. Seattle:Eastland Press. 2007:1-565.

Farquhar, Judith & Zhang Qicheng. 『Ten Thousand Things : Nurturing Life in Contemporary Beijing』. New York : Zone Books. 2012:1-347.

- of Anthropology. Ph.D. Dissertation. 2011 : 1-216.
21. Lock, Margaret. 『East Asian Medicine in Urban Japan : Varieties of Medical Experience』.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0 : 1-311.
 22. Lock, Margaret. 「Rationalization of Japanese Herbal Medication: The Hegemony of Orchestrated Pluralism」. Human Organization. 1990 ; 49(1) : 41-7.
 23. Scheid, Volker. 『Chinese Medicine in Contemporary China: Plurality and Synthesis』. Durham, NC : Duke University Press. 2002 : 1-407.
 24. Scheid Volker. 『Currents of Tradition in Chinese Medicine 1626-2006』. Seattle : Eastland Press. 2007 : 1-565.
 25. Taylor, Kim. 『Medicine Chinese Medicine in Early Communist China, 1945-63: A Medicine of Revolution』. London Routledge. 2005 : 1-236.